◇경남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 374호).

◇전남 여수 흥국사 대웅전(보물 396호).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830호).

산청 율곡사 · 여수 흥국사 · 영광 불갑사

대웅전 올부터 해체 보수

문화재청 공사기간 12~20개월

17~18세기에 지어진 절집 건물 네 채가 해체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보물 374호인 경남 산청 율곡사 대웅전과 보물 396호 전남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보물 830호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에 대해 해체 보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율곡사 대웅전 보수공사 발주를 공고했다. 지난해 해체보수를 시작했던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915호)은 보수를 위한 덧집 설치가 끝나는 대로 3월경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간다.

율곡사 포벽 탈락현상 6월부터 공사

흥국사 주춧돌 부식 … 뒤틀린 원형 복원

불갑사 지붕 새고 기둥서 벌레 · 미생물

오래 된 목조건축물의 경우 기와 교체 등의 부분 보수는 수시로 하지만 건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난해부터 문화재청 직영 보수사업으로 해체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해체 보수에 들어가면 먼저 건물 전체를 감싸는 덧집을 설치하기 때문에 짧게는 12~15개월에서 길게는 20개월 정도 고색창연한 자태를 볼 수 없게 된다. 이들 고건축물들은 이르면 6~7월경, 늦어도 9~10월경에는 보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기 이후 흔히 볼 수 있는 다포양식의 팔작지붕 건물인 율곡사 대웅전(보물 374호)은 빠르면 6월부터 해체 보수에 들어간다. 전면 해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웅전 포벽에 탈락 현상이 심한 것으로 봐 기둥이 들떠 건물이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16개월 정도의 보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대웅전을 참배하려면 내년 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조선 인조 2년(1624)에 조성된 흥국사 대웅전(보물 396호)은 건물의 네 귀퉁이에 세워 추녀를 받치는 활주(活柱)의 주춧돌(초석)이 썩어 있어 해체 보수가 결정됐다. 보물 578호인 석가후불탱화 역시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전면 해체 여부는 지붕을 들어낸 후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임시 방을 없애는 등 이번 기회에 변형된 건물 내부의 원형을 찾아서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백제 침류왕 원년(384)에 마라난타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불갑사의 대웅전(보물 830호) 역시 조선 영조 40년(1764)에 중건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해체된다. 비가 샐 때마다 응급 보수를 하긴 했지만 기와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 기둥도 벌레와 미생물 때문에 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어 있어 전면 해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 공사가 시작된 법주사 대웅전(보물 915호)은 덧집 설치 마무리 단계다. 조선 인조 2년(1624)에 중수된 법주사 대웅전은 우리 나라 3대 불전의 하나로 2층 건물의 웅장함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둥과 마루의 부식이 심해 전면 해체에 들어갔다. 2003년 말이나 돼야 보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대보름 맞이 탑제 · 장승제

민속박물관 장승동산서

국립민속박물관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야외전시장에 마련된 장승동산에서 '희망의 2002 정월 대보름 맞이 탑제 및 장승제'를 21일 오전 10시~오후3시에 연다.

탑과 장승, 솟대는 선돌 등과 함께 마을제의 대상이자 주민들의 소박한 신앙물로 주민 전원의 공동 준비와 참여로 진행되는 향토축제로서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급속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전통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대사동 마을의 장승제를 모델로 현지 마을 사람 30명을 초청해 치를 예정이며, 관람객이 탑제 및 장승제에 제주(祭主)로 동참하는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 장승과 솟대를 깎는 과정을 비롯하여 장승제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재현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마을 신앙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02)725-5964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승오 스님 불화전 대림아트갤러리서

승오스님의 '불화전'이 24일까지 서울 관훈동 대림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가야산 해인사 강원의 학감으로 재직 중인 스님은 82년부터 불화 공부를 해 왔으며, 90년에는 전승공예대전에서 '관음자용 32현 16폭 병풍'으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모습의 관음도 30점과 지장보살도, 지장시왕도, 18나한도, 심우도, 부모은중도 등의 그림과 반야심경, 금강경을 옮겨 놓은 글씨 등 총 45점이 선보인다. (02)733-3788

◇승오 스님 作 '관음도'.

현대불교문학상 발표

소설-김성동 씨
시-이근배 씨
평론-김재홍 씨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 스님)가 주관하는 제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소설 부분은 장편소설 <꿈>을 통해 현대불교소설의 한 영역을 개척한 김성동씨(소설가)가 선정됐으며, 시 부분은 이근배씨(시조시인, 재능대교수), 평론 부분은 김재홍씨(평론가, 경희대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이 난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지 1년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나 자신 문학과 불교의 만남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돌이켜보니, 아득하게 잊고 있었던 선시(禪詩) 한 편이 떠오른다. 그 시를 계기로, 인간을 성숙으로 이끄는 문학의 세계와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에 다가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고전이란 그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정신적 키를 훌쩍 크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T. S. 엘리어트가 말했던가. 내 마음에 처음 새겨진 그 '고전'은 12세기 중국 송나라의 야보도천(冶父道川)의 시다.

> 대 그림자 뜰을 쓰는데
> 먼지 하나 일지 않는다
> (竹影掃階塵不動)
>
> 달빛이 연못을 꿰뚫어 바닥에 닿았는데
> 물에는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 (月穿潭底水無痕)

야보도천의 '금강경송'

한 물결이 살짝 흔들리자 만물결이 뒤따르네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이 시가 내포하는 의미보다 이런 시를 쓴 시인의 직관적이고 담백한 경지가 한없이 부러웠었다. 그리고 나도 선의 세계를 알아서 이러한 경지를 조금이나마 맛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첫사랑 이후 나의 관심은 늘 그 언저리를 맴돌았고,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늘 그 청량한 기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읽어보니, 이 시가 육조 혜능을 깨닫게 한 <금강경>의 핵심구절인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應無所住而生其心)'에 대한 절묘한 비유라는 것이 느껴진다. 하나의 작품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이런 경지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선가(禪家)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종밀, 부대사, 혜능, 야보, 종경의 다섯 명의 대가가 해석한 책이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이다. 그 중에서 야보는 파격적으로 시를 주석으로 붙였다. 그것이 불후의 명작 <금강경 치부송(冶父頌)>이다. 말하자면 선에 입각해 금강경을 해석한 것으로, 세세하고 논리적인 산문 주석을 버리고 선시(禪詩)라고 하는 예리한 칼을 빼들어 언어의 길을 끊어버린 것(言語道斷)이다. 그의 시는 우리로 하여금 백척간두에 서게 한다. 우리의 눈앞에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진다. 백척간두에서 시의 허공 속으로 한 발 더 내딛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그 암시가 담고 있는 빈 공간이 얼마나 큰지는 같은 책에 수록된 다음의 시가 잘 보여준다.

> 천길 낚싯줄을 똑바로 내리니
> (千尺絲綸直下垂)
> 한 물결이 살짝 흔들리자 만물결이 뒤따르네
> (一波纔動萬波隨)
> 고요한 밤 물은 차서 고기 아니 무나니
> (夜靜水寒魚不食)
> 배에 가득 달빛만 싣고 돌아가누나
> (滿船空載月明歸)

■문학평론가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5W,10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동간격
22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기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구입문의 (02)2266-2634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3-2638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정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달노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